

濟州島 喪·祭禮의 節次와 信仰的 意味

현 승 환*

차례

1. 머리말
2. 상·제례의 절차
3. 의례의 구분
4. 신앙적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제주도에는 여성 중심의 무속의례와 남성 중심의 유교식 의례가 공존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제주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다. 의례가 생활의 규범이요, 신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통해 제주민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게 마련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 이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닥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거나 혹은 공포의 대상 으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자에게 의지하거 나 신앙심으로 안정을 찾는다.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그런 신앙심의 일례를 상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례는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거치는 가장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의례 중 하나이다.

이 글은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상·제례의 절차를 중심으로 의례 속에 투영된 절차의 신앙적 의미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의례에서 상·제례가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논의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주민의 세계관, 영혼관 등을 살필 수 있는 기초적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놀드 반 게넵(1873-1959)이 나누는 통과의례¹⁾ 분류 방법에 따라 논의를 진행한다. 그는 벨기에 태생의 유명한 프랑스 민족학자이며, 민속학자로 여러 민족의 통과의례를 조사, 연구하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의례로 출생의례, 관례, 혼례, 상례를 들고 인간이 거쳐야 할 의례라 하여 중시하였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의례는 分離, 過渡(轉移), 加入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²⁾ 분리의례는 개인이 이전에 가졌던 지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전이의례는 새로운 지위 앞에 가로 막힌 장애를 점차로 제거하고, 통합의례는 그가 새로 얻은 지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정을 받아 흡수되는 행위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³⁾

유교문화권 하의 제례는 반 게넵의 통과의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례와 더불어 한 인간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이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장철수에 의해 언급되었는데⁴⁾ 상례의 과정을 반 게넵의 통과의례 분류방법에 따라 구분은 하였지만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논의는 미약했다. 따라서 필자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면서 무속과 관련시켜 신앙적 의미를 찾는 데 주력할 것이다.

1) Arnold van Gennep의 「Les rites de passage」를 通過儀禮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張哲秀는 「韓國의 冠婚喪祭」(집문당, 1995, p.68)에서 平生儀禮를 학술용어로 사용하고, 통과의례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주기성을 띤 것이든, 임시성을 띤 것이든,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의하여 생기는 생활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달된 의례를 말한다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인간이 태어나 거쳐야 하는 의례라는 데 의미를 두어 통과의례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A. 반 게넵, 전경수 역, 「通過儀禮」, 을유문화사, 1994.

3) 張哲秀, 「韓國의 冠婚喪祭」, 집문당, 1995, p.69.

4) 張哲秀, 위의 책.

논의의 주 자료는 제주도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범위의 한정이 논의를 폐쇄적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제주의 문화가 한국 본토와 유다른 별개의 문화전승 구역이 아니라 언어 민속 등 여러 가지가 한국 본토와 상당히 유사한 문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일 문화권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 문화 현상은 곧 한반도의 문화 현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글의 논의는 제주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본토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논의의 과정은 상례와 제례의 과정을 살피고, 그 과정을 반 개념의 통과의례 분류방법에 따라 구분한 후 그 신앙적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2. 상·제례의 절차

상·제례의 절차는 『예기』, 『주자가례』 등에 나타나 있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친 『사례편람』의 절차를 많이 따른다. 그러면서도 민간신앙적 요소를 수용하여 상·제례를 행하고 있다. 먼저 이들 절차를 살펴본다.

가) 상례

임종 : 운명하기 직전에 이르면 유언을 듣고 원미를 마련했다가 운명하는
분의 입에 조금씩 넣는다.

초혼 : 운명하면 망인의 옷저고리를 갖고 지붕 위에 올라서서 왼손으로 옷
깃, 오른손으로 옷 허리를 잡아 “金海金公〇〇七十復” 하는 식으로
세 번 외친다. 이 옷은 시신 위에 덮어 두었다가 장사치를 때 함께
묻는다. 초혼이 끝나면 상에 원미를 올리고 제주를 부어서 분향한
다음 상주들은 곡을 하고 부고한다.

염습·입관 : 백미나 메밀로 만든 작은 떡을 2~3개씩 양손, 가슴에 넣는다.
이는 저승문을 지키는 개를 쫓는데 쓰이는 것으로 관념한다. 향탕물

로 시신을 씻고, 호상옷(수의)으로 갈아 입히고 爪髮囊을 좌우 허리 부분에 넣고 입관한다.

성복 : 관 앞에 병풍을 치고, 상제는 상복으로 갈아입는데 부모상에 따라 다르다. 성복제는 喪事에서 치르는 첫 차례라는 뜻을 가지며, 이 때의 제물이 3년 상을 마칠 때까지 감용하는 첫 제사음식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일포 : 매장하러 떠나기 전 날 저녁에 치르는 제이다. 제물은 딸상제가 준비한다. 제의 순서는 기제사와 같다. 헌작은 주상이 단적으로 하고 배례는 횡배(혹은 직배)로 한다. 이 때부터 조객 조문이 행해진다.

발인 : 관을 들고 나갈 때 문지방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며, 관이 나가고 나면 부너자는 망인이 생전에 쓰던 그릇을 내던져 깨뜨린다.

노전제 : 장지로 가는 도중 고인의 친한 친구집이 있으면 잠깐 멈추고 고별제를 치른다.

토신제 : 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치른다.

하관제 : 관을 구덩이에 넣고 치르는 제이다.

성분(진토, 달구) : 무덤에서 멀지 않은 곳의 흙을 파다가 쓰는데 이를 진토라 하고, 파내는 구덩이를 진토굴이라 한다. 봉분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팽이자루 따위로 봉분을 다지는데 이를 달구질이라 한다. 봉분이 완성되면 산담을 두른다.

초우제 : 성분 후 장지에서 지내는 제이다.

귀양풀이 : 집으로 돌아오고 난 후 여성이 주관하여 심방을 불러 치르는 무속의례이다. 사령을 데리고 저승으로 잘 가 주도록 차사에게 비는 의례이다. 고인의 생전의 한을 풀어주며 치송한다.

재우제 : 장사 다음날의 제이다.

삼우제 : 재우제 다음날의 제이다.

졸곡제 : 삼우제 후 백일의 제이다

삭망제 : 매월 1일, 15일의 제이다.

소상 : 운명 후 1년 제 되는 날의 제이다. 조객의 조문이 행해진다.

대상 : 운명 후 2년 제 되는 날의 제이다. 조객의 조문이 행해진다.

시왕맞이 : 귀양풀이와 같이 여성이 주관하는 제이다. 심방을 빌어 사령이 저승으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저승길을 닦아주고, 고인의 심회를 듣고 한을 풀어준다.

담제 : 대상 후 치러지며 진설법이 기일제사와 같다.

나) 제례

조상에 대해 치르는 제의로는 忌祭를 칭한다.⁵⁾ 기제는 매년 기일에 치러지고, 4대봉사가 끝나면 지제를 한다. 그리고 5대조 이상은 매년 청명 후를 택하여 묘소에 가서 치르는데 이를 묘제라 하며, 제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참신 : 집사가 정위치하면 삼헌관이 재배를 한다. 이것을 참신이라고 한다. 삼헌관은 초헌 아헌 종헌으로 장남이 초헌관, 차남이 아헌관, 셋째는 종헌관이다. 손자대의 경우도 같다. 여자는 헌관이 될 수 없고 배례도 하지 않는다.

강신 : 참신이 끝나면 초헌관이 제상(祭床) 앞에 나가 꿇어앉고 향을 3회 향로에 넣어 불지르면 집사가 잔에 술을 붓고 초헌관에게 건넨다. 초헌관은 그것을 왼손으로 받아 오른손으로 갖고 향로 위를 우측으로 3회 둘러 모사 접시에 세번 나누어 술을 붓는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면 삼헌관이 일제히 배례를 한다. 이것을 강신이라고 한다. 사령을 불러 들여 앉히는 것이다.

초헌 : 초헌관이 배석에서 엎드리면 집사가 잔에 술을 붓고 초헌관에게 건넨다. 초헌관은 그것을 잡고 신위에 바친다. 집사가 그 잔을 제상 위에 올리고 젓가락을 잡고 채소 위에 걸친다. 주의할 것은 그 젓가락을 생인이 식사를 할 때와는 거꾸로 젓가락의 근본 쪽을 왼편으로 하여 걸친다.

독축 : 이어서 집사가 축문을 초헌관에게 건네면 초헌관이 그것을 잡고 神

5) 그 외로 四時祭, 禰祭, 祠堂祭 등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에서 치르지 않는다.

位에 바치고, 집사가 꿰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다 읽으면 초헌관은 배례를 한다.

아헌 : 초헌관의 배례가 끝나면 아헌관이 엎드려 집사가 초헌관이 바쳤던 잔을 내리고 술을 부어 아헌관에게 건네면 초헌관과 같이 술을 바치고 재배한다.

종헌 : 아헌관과 같이 종헌관이 술을 바치고 재배한다. 이 종헌의 잔은 제의가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는다.

삼시 : 종헌의 잔을 바친 후 집사가 수저를 밥 가운데 수직으로 꽂아 세운다.

첨작 : 초헌관이 엎드려 앞에서와 같이 술을 바치면 집사가 종헌관이 바친 잔에 3번 나누어 붓는다. 그리고 삼헌관 일동이 배례한다. 신위는 삼헌관이 바친 술을 3잔 마신 것인데 좀 더 마시도록 권하는 의미이다.

헌다: 집사가 갹을 약간 옆으로 옮기고 그 곳에 송늑을 두고 손가락으로 밥을 조금씩 세 손갈 때 송늑 속에 넣은 후 손가락을 송늑에 넣어 밥그릇에 기대도록 한다. 그리고 삼헌관과 집사가 엎드려 다 잠수시도록 권하고 먹는 사이에 엎드려 기다리는 것이다.

잡식 : 2~3분간 엎드린 후 초헌관이 가벼운 헛기침 소리를 내면 일동이 일어나고, 집사는 갹, 술, 떡, 고기 그 외 모든 제물을 조금씩 뜯어 송늑에 넣는다. 이것을 잡식한다고 한다.

사신 : 삼헌관이 일동 배례하고 물러나면 집사와 남성 참가자들이 각각 배례를 한다. 제의가 끝나고 송신하는 것이다. 집사는 지방과 축문을 모사 접시에서 태우고 그것을 잡식한 송늑에 넣어 지방 위에 던져 버린다. 死者(神位)에 붙어온 여러 死靈을 대접하는 의미가 있다.

음복 : 제상을 치우고 모여 음식을 먹는다. 신이 준 복을 마신다고 하여 제상에 올렸던 술을 나누어 마시는데 이것을 음복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제의는 살아있는 인간에게 식사를 대접하듯이 신위를 불러들여 앉히고 술과 식사를 권한 후 뒤따라 온 사령이나 잡신 등을 대접해 보내

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단헌단작식이라는 것은 헌관 한 사람이 초헌관이 하는 일을 하고 아헌과 종헌의 제순이 없다. 헌관이 한 사람이니까 술을 한 잔만 바치고 바로 식사를 권하게 되는 것이다. 단헌단작은 약식의 제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의례의 구분

상례는 死者儀禮요, 제례는 祖上崇拜를 위한 추모의례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상례와 제례는 엄연히 다르다. 먼저 제주에서 행해지는 상례 절차를 반 개념의 설에 맞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가) 상례

1) 분리의례(rites of separation)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오늘날은 생사의 구분을 심장의 박동 유무에 두어 심장 박동이 있으면 설사 의식이 없더라도 사망으로 진단하지 않는다. 심장 박동이 멈추면 의사는 사자로 인정한다. 이 과정은 분리기, 과도기(전이기), 가입기라는 3단계로 구분된다.

분리기는 臨終을 말한다. 환자가 운명하게 될 때 자손들은 환자 곁에 모여 임종을 지켜본다. 물을 떠 놓고 유언을 듣는다. 이 때까지는 자손들이 환자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환자의 뜻을 전달받으려고 애를 쓴다. 생사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시작의 단계이다.

과도기는 招魂에서 殮(殮)까지이다. 환자가 호흡을 멈추면 환자의 저고리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 이름을 부르고 복(復) 복, 복 하고 불러 그 옷을 환자의 몸 위에 잠시 둔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 말고 돌아오라는 의미이다. 이렇고서도 숨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을 재확인하고 차사상(差使床)을 차린다.

운명하면 향탕수로 사자의 온 몸을 깨끗이 닦아내는 殮(殮)을 한다. 이 역시 生者와 死者를 구분짓는 의식이다. 시신을 다 씻기고 나면 수의(壽衣)를 갈

아입힌다. 생전의 옷을 벗기고 사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스스로 생전에 수의를 준비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입고 춤을 추며 놀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수의 준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식의 힘을 빌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수의를 마련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마무리라 여기고 있다. 반함(飯含)이라 하여 쌀을 입안에 넣어 저승에 갈 때 양식으로 하게 하고, 저승문을 들어설 때 저승문을 지키는 개에게 내어 주어 개를 쫓는데 사용하라고 자그만 떡을 양 손과 가슴에 각각 3개씩 넣는다. 조발낭(爪髮囊)이라 하여 망인의 머리털을 몇 개, 손톱, 발톱을 깎아 넣고 시신을 묶는다.

가입기는 입관(入棺)이다. 입관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되면 관 밑에 지금(地衾)을 깔고 시신을 넣고 천금(天衾)을 덮은 다음 땀수건을 넣는다. 이는 저승길이 험하고 멀므로 긴 여행을 하다 땀이 나면 닦으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보공(補空)으로 채운 후 두경을 덮으면 된다. 시신을 관에 넣고 덮개를 함으로써 생자는 사자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캄캄한 관 속에 시신을 모심으로써 생자와 사자는 生의 영역에서 死의 영역으로의 분리가 마무리 된다.

2) 과도의례(transition rites)

입관 후 지내는 성복제는 망자를 위한 첫 제의이다. 이 과도의례가 행해지는 동안은 사자로 취급하지 않고 생자와 같이 고인을 대접한다. 그러면서도 고인은 생자가 아니므로 고인이 머물고 있는 집은 부정한 집이 된다. 집안에 혼인식이 있어도 연기되고, 마을제가 있어도 상례 뒤로 연기된다.⁶⁾ 과도의례 역시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분리기는 성복(成服)에서 일포(H哺)까지이다.

고인의 가족들은 초혼을 하고도 깨어나지 않고 환자가 운명하면 상복으로 갈아입고 친족들은 두건을 쓰고 성복제를 치른다. 이어서 혼백상을 모시고 조문객을 맞이한다. 조문객들은 먼저 시신이 놓여 있는 제상을 향하여 재배를

6) 제주도·탐라문화연구원, 『제주시의 향토민속』(제주인, 1992, pp.65-120)에 의하면 제주시 관내 마을제를 행할 때 일반적으로 上丁日에 치르지만 마을에 喪이 나거나 우환이 닥치면 中丁日, 또는 下丁日, 혹은 亥日을 택하여 마을제를 행한다고 한다.

하고 상주를 향해 단배를 하고 조의를 표한다. 이러한 과정은 생자인 조문객이 사자와의 교류를 행하는 것이다. 상주를 위해 조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위해 조문을 하는 것이다. 즉 고인과의 이별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다. 고인은 생의 영역에서 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이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문객과 고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조문객은 고인을 대신하여 상주에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상주는 생자이지만 고인과 교류가 되는 존재이다. 조문객에게 고인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그는 생자이지만 상복을 입음으로써 생자도 아니고 망자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남는다. 상주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조문객이 상주에게 배례를 하는 것은 자신과는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배례가 끝나면 조문객은 음식 대접을 받는다. 이 때 음식을 대접하는 자들은 고인의 가족 여인들로 상복을 입고 있다. 이들도 역시 생자도 아니고 망자도 아닌 중간적 존재이다. 인사를 하러 온 조문객에게 고인을 대신하여 고인의 가족이 대접하는 것이다. 고인은 조문객과 같이 식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고인이 대접하는 것과 같으므로 神人共食의 의미가 있다. 말로써 고인과의 교류가 아닌,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고인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신과 인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들로 보아 모든 의례 후 음복이 이와 같은 의미임을 알겠다. 고인을 위한 제물진설은 생자에게 올리듯이 한다. 즉 메는 왼쪽, 갯은 오른쪽이다.

이러한 과도의례의 요소는 제물 진설, 복장, 음복에만 있지 않다. 매장 후 귀가하여 여자의 주관 하에 치러지는 귀양풀이에서 과도기의 의미가 강화된다. 이 의례에서는 무당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화인 차사본풀이를 창한다.

과양생이 아들 3형제의 돌연한 죽음의 원정을 풀기 위해 강님은 김치원님의 명을 받고 염라대왕을 잡으러 저승으로 향한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다가 행기못 속으로 풍덩 빠지니 거기가 저승이었다. 돌아올 때에도 백강아지를 따라 행기못으로 와 풍덩 빠져 정신을 차리니 거기가 이승이었다. 강님은 이러한 능력을 인정 받아 김치원님은 육체를 차지하고 염라대왕은 영혼을 차지

하여 그를 저승 차사로 삼는다. 그 후부터 강님은 사령을 데리고 저승을 오가게 된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체와 영혼의 합일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면 인간은 죽게 된다. 그 영혼은 차사가 데리고 저승으로 가게 된다. 이승에서 김치원의 명을 받아 저승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 멀고 험난했다. 사자의 영혼이 차사와 더불어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는 과정 역시 멀고 험난한 것이다. 바로 이 과정이 성복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과도의례시 치르는 제의인 일포제는 고인이 생자와 마지막 이별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분리의례가 생과 사의 분리를 상징함에 반하여 일포제는 고인이 거처하는 정들었던 가족들 그리고 친족·친구들과의 분리의례이다. 생사의 분리에서 이제는 생자와의 분리가 마무리 된다.

생자와 분리되어 이승에서 거처하는 곳을 떠난 고인은 장지로 향한다. 상여를 타고 가는 고인은 가족 친지와 헤어지기 싫어한다. 상두꾼들은 이러한 고인의 뜻을 상징적으로 연행한다. 상여를 메고 가면서 친지 집 앞에 머물러 노제(路祭)를 받거나 또는 가기 싫다는 시늉을 하면서 버틴다. 이때마다 설베를 잡은 아낙들은 잡아당겨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가 장지까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과도기에 해당한다.

하관은 가족 친지와와의 분리가 완성되고 지하세계 곧 저승에 가입하는 시기이다. 하관제(下棺祭), 三虞祭에서 大喪까지가 바로 저승 가입을 준비하는 의례이다. 즉 과도의례는 생사의 분리가 끝난 고인이 가족과의 분리가 재차 이루어지고 저승으로 가는 과정의 의례임을 알겠다.

소상, 대상에는 조문객이 찾아와 초상 때와 같이 신인공식을 한다. 이승 1년은 저승 하루라는 본풀이 사설에서 알 수 있듯이 고인을 위해 세 번의 神人共食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겠다. 이는 3의 의미를 엿보게 한다.⁷⁾ 즉 고인에 대한 정성이 완성된 수만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상이 끝나면 고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 옷 등등을 태운다. 이는 저승에

7) 민담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3번 반복하여 행한다. 이것은 완성의 수임을 나타낸다.

들어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승에 남김없이 모두 갖고 가라는 의미이다. 대상이 끝나면 영혼은 저승으로의 여행이 끝난 것이다. 하지만 그 영혼이 편안히 저승문을 열고 들어섰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무속의례인 시왕맞이는 이를 확인해 준다. 귀양풀이처럼 여성에 의해 치러지는 시왕맞이는 사령을 관장하는 시왕에게 사령의 생시 죄를 사하여 극락으로 보내주십사고 기원하는 의례이다. 사령이 저승에 못 가면 중간에 해매면서 잡귀가 되어 가족 또는 친지에게 재앙을 준다고 관념하고 있다. 때문에 무속의례로 심방은 굿을 하고 사령이 저승에 잘 도착하였는지를 가족 친지에게 알려주게 된다.

유교식 의례는 사자와 생자의 교류가 없이 편안한 저승행을 위한 기원의 의례라면 무속식 의례는 사제인 심방이 저승행의 여부를 생자에게 확인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

이상으로 과도의례 속에 다시 분리기, 과도기, 가입기라는 절차를 거치며 의례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입의례(rites of incorporation)

분리의례를 거쳐 과도의례는 육체를 떠난 영혼이 저승으로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동안은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생자와 같이 제물 진설이 행해진다. 하지만 대상이 끝나고 100일이 되어 행해지는 담제(禫祭)부터는 제물 진설이 달라진다. 기일제사와 같이 메는 오른쪽, 갯은 왼쪽에 놓인다. 이는 영혼이 저승에 안착했음을 의미한다.

무속의례에서 불러지는 차사본풀이에서 강님이 행기못 속으로 빠지며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 보니 이상한 곳에 와 있었는데 바로 그 곳이 저승 연추문이었다. 거기서 강님은 염라대왕과 조우한다. 사자의 영혼이 차사를 따라 저승에 들어갈 때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염라대왕과 조우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는 차사가 아니면 다시 이승에 돌아올 수 없다. 저승으로의 가입을 인정했기 때문에 담제를 치름으로써 생자가 아닌 사자로 인정하며 생사 분리가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영역에서 조상의 영역으로 가입하는 분

리기에 해당한다.

이로써 사자와 생자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사자의 영혼은 매년 명절과 기일제사 때 후손을 찾아온다. 이 때 사자의 영혼은 조상이다. 자손은 찾아온 조상을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고 돌려보낸다. 이는 조상숭배 관념을 갖고 있는 곳은 동일하다. 사자가 다른 세계로 가입하고 난 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서양과 다른 세계관의 차이라 할 만하다. 우리의 조상은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자손의 정성에 따라 복을 주거나 재앙을 준다는 관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복 신앙은 풍수지리설과 어울려 명당을 찾아 조상을 모시는 근거가 된다.

기일제사는 4대까지 행해지며 조상으로 존경받는다. 4대봉사가 끝나면 축을 고하여 지제를 한다. 4대인 고조부모까지는 자손과 교통할 수 있어 기일에 따라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제사를 지낸다. 이처럼 구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각 조상이 서열과 개성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제를 하고 나면 묘소에 가서 제의를 행한다. 조상이 자손과 교류할 수 있는 시기는 연중 4대 명절과 제사뿐이다. 4대봉사를 하고 지제를 하기 전까지는 가입의례의 과도기라 할 만하다.

제주에서는 4월 청명이 되면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묘를 정비하고 묘제를 지낸다. 묘제를 지내는 조상들은 기일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사를 치른다. 물개성적인 조상이라 할 만하다. 아마도 4대 봉사 이후의 조상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듯하다. 즉 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신의 세계로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제주의 상·제례는 표와 같이 정리된다.

분리의례			과도의례			가입의례		
분리기	과도기	가입기	분리기	과도기	가입기	분리기	과도기	가입기
입종	초혼- 염습	입관	성복- 일포	발인- 하관전	하관- 시왕맞이	담제	4대봉사	묘제

나. 제례

제례는 앞에서 보았듯이 반 개념의 통과의례에 속하지 않는 절차이다. 하지만 조상숭배 관념을 가진 유교문화권에서는 인간의 일생에 당연히 포함되는 절차이다. 상례는 사자를 위한 의례인 점에 반하여, 제례는 조상숭배를 위한 추모의례인 점에 차이가 있다.⁸⁾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태어나고 죽는다. 이 죽음에는 소위 '개죽음'이라 하여 동물의 죽음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가 있고, 엄숙하게 일정한 격식을 갖춰 상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후자인 경우는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상당히 높은 지위의 사람은 그만큼 성대하게 의례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A. W. Malefijt는 그의 저서 『종교와 문화, Religion and Culture』에서 시신을 다루는 의례를 각각 死者儀禮(cult of the dead)와 조상숭배(ancestor worship)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⁹⁾ 전자는 죽음의 세계뿐 아니라 시신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여 다루며, 후자는 죽은 사람을 신의 존재로 전환시키는 절차에 따라, 시신을 다루며 그에 따른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사람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 의해 생긴다. 망자를 두렵게 보는 경우는 사자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 관념의 반영이며, 조상으로 보는 경우는 그들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았을 때의 역할을 고려하는가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상례의 내용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 내용은 대체로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¹⁰⁾ 첫째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와, 둘째 일정한 격식과 절차를 거쳐서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첫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죽음'이라고 하여, 마치 동물의 죽음과 같이 취급하며, 둘째의 경우는 죽음의 세계에 대한 관념에 따라 2종류로 나누어진다. 즉, 죽음의 세계를 무서운

8) 장철수, 앞의 책, pp.40-42 참조.

9) 장철수, 위의 책, p.40 재인용.

10) 장철수, 위의 책, pp.40-42.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곳에서는 시신도 역시 무서운 존재로 다루어 처리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죽은 사람을 神의 존재로 전환시키는 절차에 따라, 시신을 다루는 방법도 그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사자의례는 육체적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죽음으로 인식하며, 그 시신과 분리된 영혼을 저승세계로 잘 보내는 행위가 중심이 된다. 시신에 대한 두려움은 그 영혼에 대한 기대감의 소멸이며, 이는 사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까지 두려워한다. 따라서 망인이 이승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마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없애버린다. 망인은 항상 저승에 머물게 되어 이승에 특별한 영혼의 거처가 필요없지만 어쩌다 꿈에 나타나게 되면 이는 저승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승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인식하여 의례를 행한다. 의례는 두려움의 대상인 망인과 의례를 행하는 개인과의 관계로 인식되는데, 주로 소규모 집단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지연적인 기반 위에서 치러지는 의례행위가 중심을 이룬다.

조상숭배는 육체적인 활동이 정지되어 있을지라도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며, 육체를 떠난 영혼을 이승에서 정중하게 모시는 행위가 중심이 된다. 사회에서는 망인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어 그를 추모하고 망인과 관련되는 물건들은 최대한 보존하려고 한다. 이는 영혼이 항상 이승에 머물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그 거처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의례는 혈연을 중심으로 집단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때 제주에서 행해지는 상·제례는 사자의례와 조상숭배가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4. 신앙적 의미

가. 상례

유교식 의례에서는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저승에 고이 안착하도록 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영혼이 저승에 고이 안착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상례를 치르는 상주는 이 사실을 알고 싶어하지만 유교식 의례는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 喪家의 주부는 여성이 주관하는 무속의례를 행하여 영혼을 위

무하고 저승 안착 여부를 알고자 한다. 남성은 다른 행사와 달리 이 무속 의례를 반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속신앙이 자신이 알고자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제주도의 무속의례는 귀양풀이와 시왕맞이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본래는 사자가 저승으로 향해 가는 의례가 무속의례로 행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家禮 속의 절차뿐만 아니라 무속적 요소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교식 의례가 강화되면서 무속식 의례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 귀양풀이와 시왕맞이이다. 이 두 의례가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자와 사자의 교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유교식 의례가 조상을 공경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반면 무속식 의례에서는 조상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무속의례에서 심방은 고인의 가족 친지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사령은 사제인 심방을 통해 자신의恨을 풀다. 이처럼 무속식 의례는 생자와 사자의恨을 해소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 의례인 유교식 의례와 더불어 여성 중심의 무속식 의례가 병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행해지는 상례는 각각의 절차가 한 인간이 생을 마감하고 저승에 안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절차에 담겨 있는 신앙적 의미는 바로 오랜 세월 동안 끈끈하게 유지해 온 필연적 요인이며, 앞으로도 쉽게 단절되지 않을 요소이다. 신앙적 의미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제의 절차는 본래 신앙적 차원의 것으로 이승에서 인간이 생활하듯이 영혼이 저승으로 가서 나름대로 생활한다는 신앙의 상징적 표현이던 것이 윤리적 차원으로 변화하면서 그 절차를 구분한 것이다.

둘째, 인간은 육체와 혼의 합일로 되어 있다는 인간관이 있으며, 영혼은 저승에 도달하기 전 곧 불안정기에는 공포의 대상으로 잘 모시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반면에 저승에 도달한 후에는 안정기로 이 때부터는 존경의 대상이 된다. 즉 조상이 되어 자손으로부터 제사를 받는다.

셋째, 의례의 절차는 고인이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데 분리, 과도, 가입의례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祭 후에 상제와 망자, 상제와 생자가 식사를 같이 하는 神人共食 과정을 거침으로써 저승과 이승이 상제를 통해 교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생사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喪家は 부정한 장소, 喪期는 부정한 기간이요, 생자와 망자를 중개하는 상제, 복친은 부정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망자의 영혼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들릴 수 있다는 憑依 現象에 근거한다. 이같은 인식은 사령이 저승에 안착하지 못하면 잡귀가 되어 떠돌다가 병의하여 재앙을 준다는 관념에 있다.

넷째, 의례는 무속식과 유교식이 공존한다. 윤리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화된 의식절차가 아닌 사제자인 심방에 의해 신과 인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유교식 제의는 <망인(조상)-상제-생자(친지)>의 관계로 상제가 사제자의 역할을 하며, 무속식 제의는 <망인(조상신)-심방-생자(친지-단골)>의 관계로 심방이 사제자의 역할을 한다. 즉 유교식은 조상과 자손의 관계로 조상을 존경의 대상으로 숭배하는데, 무속식은 심방이 모셔야 할 신과 단골의 관계로 조상을 여타의 신과 같이 잘 모시면 복을 주고, 잘 안 모시면(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재앙을 준다고 관념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간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은 저승에 안착해야 善神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고 여행 중인 경우는 불안정기에 있으므로 잘 모셔야 한다. 특히 원한을 풀지 못한 채 죽어 해매는 영혼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조상은 영혼이면서 魂魄이기도 하지만 雜鬼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념은 4대 봉사를 강화시키고 사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나. 제례

『가례』에서 출산의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제례를 포함시킴으로써 상례와 더불어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제주에서도 제사는 정성으로 행해진다. 이의 절차를 통해 제사에 대한 관념과 신앙적 의미를 살펴본다. 모든 제의의

제법은 삼헌삼작식과 단헌단작식의 둘로 나뉜다. 삼헌삼작식은 헌관 3인이 나란히 서서 신위를 향해 제주(祭酒)를 세 번 바치는 것을 말한다.

제의의 절차를 보면 살아있는 인간에게 식사를 대접하듯이 신위를 불러들여 앉히고 술과 식사를 권한 후 무속에서처럼 뒤따라 온 사령이나 잠신 등을 대접해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¹¹⁾ 이는 가례의 절차나 무속에서 신을 청해 돌려보내기까지의 請神, 娛神, 送神의 절차에 해당하여 신에 대한 공통된 관념을 엿볼 수 있다.

신화는 고대인들이 신에 대해 갖는 관념의 표현이다. 이러한 신화는 의례와 더불어 전승되기도 하지만 신화 자체가 민간에 녹아들어 설화로 전승되기도 한다. 제주에서 전승되는 민간 설화들에는 이러한 신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들을 통해 제주민의 제례에 대한 의식을 살필 수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제주도 설화 중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여 그 속에 담긴 관념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¹²⁾

1. 영혼은 제사먹으러 온다.
2.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
3. 조상신은 묘에 머물고 있다.

영혼이 제사먹으러 온다는 이야기는 제주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제주의 예를 통해 그 의미를 확대시켜 볼 수 있는데 설화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나그네가 무덤에서 잠을 자는데 제사먹으러 가자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나그네가 누워있는 무덤에서 소리가 나는데 손님이 있어 못 간다고 하고 혼자 다녀오라 한다. 조금 있으니 그 노인이 다시 와서 젓밥에 뱀이 있어 쾌שמ하길래 손주를 국 속에 빠뜨려 손을 데게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11) 무속의례에서는 주잔님김이라 하여 주신(主神)들에게 대접하여 기원한 후, 하위 잠신들을 대접하는 대목이 있다.
 12)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구연되는 설화를 직접 채록하여 기록한 것으로 가장 현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른 자료를 참고하기로 한다.

할머니 영혼이 그 치료법을 말하며 안타까워 한다. 이러한 두 영혼의 말을 들은 나그네는 아들 집을 찾아가 보니 제사를 준비하다가 손주가 화상을 입어 난리가 나 있었다. 나그네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전해주시 다음부터 그 아들 내외는 정성으로 제사를 지냈다.¹³⁾

이 이야기에서는 첫째, 조상신은 무덤에 머물고 있고, 둘째, 정성을 들이지 않고 제사를 지내면 그 재앙은 아들이 아닌 손자 즉 자손에게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 조상신은 무덤에 머물고 있기에 4대봉사가 끝나면 반드시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하고,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이 모자라면 반드시 그 재앙을 받는다는 사고가 내재해 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자신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곧 후손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하고 있어 그 고통이 배가 됨을 알 수 있겠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 때문에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제사를 행할 때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야 함을 강조한 설화이다.

그러한 예로 '제사는 정성껏 해야'라는 현용필의 이야기가 있다.¹⁴⁾ 이는 살아있을 때와 같이 영혼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사에 참석했던 영혼이 제삿날 집에 갔다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자 친구의 꿈에 나타나 "내 아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오늘이 나의 제삿날이다. 제사를 먹으러 왔는데 문을 닫아 버려서 못 들어가니 내 아들에게 이 말을 전해 달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문을 열고 다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영혼이 제사 먹으러 가려는데 문을 닫고 제사를 지내니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사 음식은 영혼이 와서 반드시 먹고 간다는 사고가 내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물을 준비하면서 잘못하여 제물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그것이 영혼에게는 뱀으로 보임을 말하여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몸을 먼저 단정히 해야함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 외로 지방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도 있다.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2, 1981, pp.260-262.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책, pp.257-260.

딸만 둔 노부부가 데릴 사위를 두고 죽으니 그는 장인 제사를 정성껏 치렀다. 장인은 제삿날 집에 가 보니 사위의 부친이 와 있어서 제사를 받아 먹지 못했다. 돌아가면서 가까운 친구에게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사위는 장인 친구에게서 그 말을 듣고 다음부터 누구의 제사임을 글로 쓴 지방을 붙이고 지내었다.¹⁵⁾

이는 지방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지만 제사를 지낼 때는 누구의 제사임을 밝혀야 되며 이를 紙榜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겠다.

제주도의 제사에서 특이한 점은 제상이 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조상의 死靈을 위한 상이고, 다른 하나는 門神을 위한 제상이다. 전자는 조상상, 후자는 문전상이라고 한다. 조상상은 방에 차리는데 정성들여 만든 제물들을 올리고 부부 양위의 지방을 써 붙인다. 문전상은 작은 탁자에 조상상에 올린 것과 같은 제물을 올리고 조상상 옆에 둔다.

12시(자정)가 지나면 먼저 門神 제의부터 시작한다. 집 주인 또는 자식이 방 구석에 두어 두었던 문전상을 입구 문 앞에 옮기고 단헌단작 약식 제법으로 행하고, 잡식(제물을 각각 조금씩 뜯어놓는 일)한 것은 지방 위에 던져 버린다. 이 제의를 門祭 또는 門前祭라 한다.

문제를 마치고 門祭床을 부엌으로 건네면 주부가 또 문제상의 제물을 잡식하여 이것을 솔덕에 3번 나누어 던져 올린다. 이것은 竈王告祀라 하며 부엌신에 대한 제의이다.

심방에 의해 행해지는 무속의례에서도 반드시 문신과 조왕신이 모셔지고 이들은 가택신으로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심방이 창하는 신화인 문전본풀이에서 문신인 막내아들과 조왕신인 어머니가 중심인물이 되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도 그 중요성을 말하는 한 방증이 된다. 이는 유교형식화되기 이전부터 심방에 의해 모셔지고 있던 가택신의 제의 중 특히 중요시되고 있던 문신과 조왕신의 제의가 유교화된 조상제사로 들어와 같이 행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15) 현용준, 『제주도 민담』, 제주문화, 1996, pp.166-167.

문전제가 끝나면 선조의 靈에 대한 제의를 행한다. 제사가 끝난 후, 그 제물을 조금씩 끊어 이것을 집의 입구 앞에 던진다. 이것은 다음날 까마귀가 먹고 가기도 하는데 이 때 이 까마귀를 사령 또는 영혼으로 관념하고 있다. 차사본풀이에 의하면 저승차사 강님이 저승으로 데리고 갈 사람들의 명부를 갖고 오다가 까마귀에게 대신 전하라고 했는데 그 명부를 잊어버린 까마귀가 아무나 죽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까마귀가 나타나면 흉사가 닥친다고 하는 관념이 있다. 제사를 지낸 다음날 까마귀가 나타나 음식을 주워 먹으면 제사를 잘 지냈다고 하는데 이는 무속 신앙에 근거를 둔 것이다.

제사가 유교식 제의라고 하지만 무속 의례의 관념과 대동소이하다. 조상신이 찾아와서 자손과 같이 神人共食하는 관념이 오늘날까지 유지된 것은 추모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종교처럼 신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관념들은 무속에서 조상신과 자손의 교류가 사제자인 심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귀양풀이, 시왕맛이와 같은 무속 의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겠다.

5. 맺음말

이상의 논의는 제주에만 한정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서론에서 밝혔다.

하지만 탐라국의 고씨 왕조가 백제, 신라에 조공을 바치다가 급기야 고려 때에는 한반도에 복속되어 오늘날까지 한 언어를 쓰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한반도와 문화적으로 동일시한다고 하여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반도의 문화가 유입되자마자 제주 문화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오랜 세월을 두고 전승되는 문화의 파편을 통해 제주 문화의 특징을 회미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 결과 제주의 상례는 여성 중심의 무속신앙과 남성 중심의 유교식 의례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례에서는 사자의례가 중시되었고, 제례에서는 조상숭배가 주된 관념이었다. 시신을 두려워하는 관념은 쉽사리 상례의 절차를 변경하지 못하였고, 조상신의 저승 안착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욕

구는 여성 중심의 무속의례를 통해 꾸준히 계승되었다. 또한 오늘날 행해지는 유교식 제의인 제례 속에 문전제라는 독특한 의례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무속신앙에 근거한 사교가 중심이 됨을 살필 수 있었다.

날로 변하는 문화의 혼류 속에서 절해 고도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나름대로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의 상·제례가 한국인의 신앙의식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됨은 그다지 과장된 주장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주에서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민속학적 자료를 토대로 고대인의 상례를 재구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살피는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주인의 상·제례에 대한 신앙적 의미는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